

지역 주력산업 특화 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여효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소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 지역금융의 필요성

- 지역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벤처투자 쏠림현상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 여유자금을 보유한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
 - 자금의 대부자에서 차입자로 전달되는 자금의 순환 경로는 크게 직접금융(direct finance)과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으로 나뉘짐
 - 또한 금융시장을 통해서 생산적 투자기회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투자

-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capital)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지역 내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지역주민의 생애 소득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 전북의 벤처투자 여건

- 전북 소재 벤처기업 수는 819개이며, 이는 전국 2.1%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북의 중소기업 수 비중인 3.6%보다 낮은 수치
- 2021년 기준으로 전북소재 창업투자회사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창업기획기업의 수도 9개 사에 불과하여 지역특화 펀드를 조성하더라도 도내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 따라서 지역내 특화산업 활성화, 펀드의 조성·활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북 출자펀드 현황

- 전라북도가 출자한 펀드의 조성액 대비 도내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역내투자 비율은 탄소성장펀드(60%)와 전북경제활성화펀드(60%)가 역내투자 비율이 높음
- 전북이 출자한 9개 펀드의 총 조성액은 2,416.5억 원이며, 이중 전라북도의 출자액은 256억 원(10.6%)임
- 도와 모태펀드의 출자액 비중은 50.1%로 조성액의 나머지 49.9%는 민간에서 투자하고 있음
- 존속기간 만료가 차례로 도래하는 다른 펀드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펀드의 존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도의 투자가 추가적인 역내 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라북도의 출자액 대비 도내투자실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북경제활성화펀드의 경우 전북이 10억원을 출자하여 90억원의 역내 투자 실적을 이끌어 냄

□ 지역특화펀드 활성화 요인

- 지역특화펀드 운용사례 검토를 통한 특화펀드 활성화 요인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음
 - ① 준비된 설계
 - 펀드 운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지역에 기반한 업체에 국한할 것인가, 또는 지역외 기업이 라도 추후 지역기반에 유리한 경우이면 허용할 것 인가 등등

- 도입시 우선 적은 출자금으로 운용하고 투자기간도 4+4 뿐만이 아니라 3+3, 또는 2+2 등으로 투자기간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② 업종제한 여부
 - 품목이나 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금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종제한을 최소화하고 업종연관성이 높거나 업종전환의 경우 등에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투자접근성의 확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봄
- ③ 철저한 상업적 운영기반
 - 투자는 High risk, High return이므로 철저한 상업적 기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 외 일체의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운용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성에 맡겨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④ 관련펀드와의 연계투자 도모
 - 특정 특화펀드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펀드등과 연계된 투자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함
- ⑤ 주변 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1) 벤처기업의 수, 2) VC의 수, 3) 대학교 및 연구소의 수, 4)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실행여부, 5) 기업가 정신을 지닌 우수인력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수가 뒤따라야 함
 -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학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⑥ 투자선정 기준의 명확한 공표
 - 미국 VC인 A&H(Andreessen Horowitz)사의 투자선정 기준으로 1) 혁신적 아이디어, 2) 기업가정신과 창업팀, 3) 시장의 규모, 4) 비즈니스 모델 여부를 들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투자기업 선정시 운용사가 기업에게 투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음

□ 특화펀드사례 분석 시사점

- 지역특화펀드 활성화 과제로 흔히 투자금 부족이 지적되나 자금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사들이 운용펀드의 지역 특화도를 높이려는 노력임
- 지역기반 투자는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특화된 기업을 개발 투자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또한 각 지역별로 위치한 테크노파크, 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센터 등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일괄되게 관리할 필요성 있음

□ 전북지역 특화펀드 활성화 추진 과제

- 지역 특화펀드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내 금융산업을 육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연금공단 이외의 다양한 지역내 자원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내 금융기관에는 전북은행 등의 지역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금융기관이 특화펀드 자금 조성 및 운용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특화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북지역 주력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업체들이 육성, 발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아이디어 뱅크가 되는 산학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화펀드 도입 방향

- 지역내 주력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업하는 중소기업, 벤처 기업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시작 단계에서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되도록 많은 기업들에 창업 지원금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초기 벤처기업의 사업성공 확률이 낮은 편임을 감안해야 하며, 사업 모델 및 구상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존재하여 사업체별 성공률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

- 다만 벤처 투자의 특성상 빠르게 성장하는 몇몇 기업들이 나와준다면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

□ 신산업 육성과 지역내 고용효과 고려

- 특화펀드 조성을 통해 도가 추진하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펀드 조성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내 새로운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펀드운용의 효과성을 벤처투자 산업의 규모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자본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역 특화펀드의 성과공유

- 지역 특화펀드의 투자금을 지자체 및 모태펀드의 기금을 활용하여 운용하되, 지역에서 성장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가령 지역주민들에게 중위험-중수익 구조의 투자상품 제공으로 지역특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판매채널을 제공하고, 펀드의 성과로 배당 등을 수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지역 내 중소기업, 벤처캐피탈의 성공 확률이 낮아 충분한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성이 높은 국채, 지방채, 시장지수 추종 펀드 등과의 혼합을 통해 투자자의 요구(Needs)에 맞추어 위험도와 수익률을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함
- 가령 특화펀드의 상품구조를 채권 비중(70%), 시장지수(20%), 지역특화펀드(10%)로 혼합하여 지역주민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금융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앵커기관 유치

- 전라북도는 부산과 함께 지역내 앵커(anchor) 기관을 통해 지역금융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단 앞서 언급한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만으로는 지역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최근 중앙과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추가 지방 이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벤처투자 기금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등의 벤처투자 관련 기관을 도내에 추가 유치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지역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에 유치한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계획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운용 관련 기관들이 포함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 방법	7

제2장 | 지역 주력산업 특화펀드 현황

제1절 국내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현황	11
1. 주요 지방자치단체 벤처 투자 펀드 현황	11
제2절 모태펀드를 이용한 벤처펀드 운용	15
1. 모태펀드 개요	15
제3절 지역특화펀드 활성화 사례	18
1. 광주광역시 AI펀드 사례	18
2. 경남벤처투자 운용 사례	23

제3장 | 전라북도 지역특화 산업 및 펀드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지역특화 산업	31
1. 전라북도 지역 특화산업 현황	31
2. 전북 기술업종별 지역특성	40
제2절 전라북도 출자펀드 및 벤처투자 현황	43
1. 전라북도 출자 펀드 현황	43
2. 전북 탄소성장 펀드 투자성과	46

제3절 전북의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	48
1. 산업 분류별 고용효과 분석	48
2. 전북 산업 대분류별 고용효과 분석	51
제4절 분석의 시사점	54

제4장 |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요약	59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63

【참고문헌】	67
---------------------	-----------

표목차

〈표 1-1〉 수도권-비수도권 벤처 투자 현황	4
〈표 2-1〉 주요 지방자치단체 벤처투자 펀드 사례	12
〈표 2-2〉 경기도 투자조합(펀드) 현황	14
〈표 2-3〉 한국모태펀드 개요	16
〈표 2-4〉 첨단 3지구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18
〈표 2-5〉 광주 AI펀드(1차) 개요	19
〈표 2-6〉 광주 AI펀드관련 조성계획	20
〈표 2-7〉 경남벤처투자 개요	23
〈표 2-8〉 경남벤처투자 펀드운용 실적	25
〈표 3-1〉 전북혁신도시 농생명 관련 이전기관 추진현황	31
〈표 3-2〉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생산량	33
〈표 3-3〉 전라북도 식품 분야 공공 연구개발 및 지원기관 현황	33
〈표 3-4〉 전라북도 소재 탄소 관련 연구 시설	35
〈표 3-5〉 전국 및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37
〈표 3-6〉 전북 지역주력 선정산업	38
〈표 3-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입지계수	40
〈표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입지계수	41
〈표 3-9〉 식료품 제조업 입지계수	42
〈표 3-10〉 전라북도 출자 펀드 현황	46
〈표 3-11〉 전북 산업 분류별 고용효과	52

그림목차

〈그림 1-1〉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순환	5
〈그림 2-1〉 경기도 투자조합 펀드 투자절차	14
〈그림 2-2〉 모태펀드 운용구조	17
〈그림 3-1〉 전국 시도별 경지면적 비율	32
〈그림 3-2〉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	38
〈그림 3-3〉 전북 식료품 제조업 입지계수	42
〈그림 3-4〉 산업 대분류별 전국 고용구조	50
〈그림 3-5〉 전라북도의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53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전국의 벤처투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써 가능성을 제시함
 - '17년 2조 1,895억 원에 달하던 전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1년 7조 467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3.2배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냄
 - 저성장 기조에 놓인 우리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써 향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벤처 투자가 붐을 이루는 기간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역적 편중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즉 전국적으로 벤처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벤처투자의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비중은 여전히 20%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17년 비수도권 벤처투자의 규모는 3,866억 원이었으며, 비중은 17.7%임. '21년 기준 비수도권 벤처투자 규모는 1조 2,795억 원이었으며 비중은 18.2%임
 -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전체 벤처투자의 최소 50% 이상은 서울 지역에 쏠려있으며, '21년도에는 서울 비중이 60% 수준을 넘어서면서 편중이 심화하는 추세임

〈표 1-1〉 수도권-비수도권 벤처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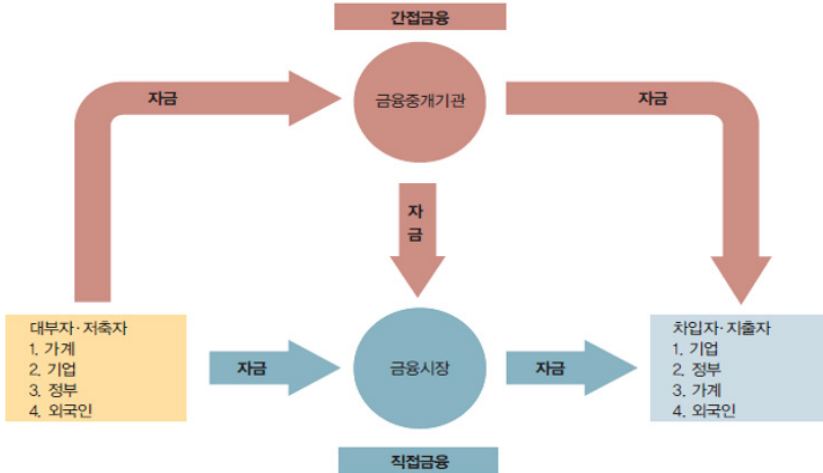
(단위: 억 원, 백분율)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18,029	82.3	25,299	81.5	30,685	79.4	30,986	78.2	57,672	81.8
비수도권	3,866	17.7	5,756	18.5	7,947	20.6	8,656	21.8	12,795	18.2
합계	21,895	100.0	31,055	100.0	38,632	100.0	39,642	100.0	70,467	100.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2.02.03)

- 지역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벤처투자 쏠림현상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 여유자금을 보유한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
 - 자금의 대부자에서 차입자로 전달되는 자금의 순환 경로는 크게 직접금융(direct finance)과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으로 나뉘짐
 - 또한 금융시장을 통해서 생산적 투자기회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함
-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capital)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지역내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지역주민의 생애소득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그림 1-1〉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순환



출처: Mishikin(2014), 금융시장론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력산업 특화 펀드의 국내 도입 사례 및 운용 사례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에 맞는 주력산업 특화펀드의 도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전라북도는 지역 내 성장동력의 확보 및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4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역량을 쏟고 있음
 - 전북이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한 4대 주력산업에는 (1) 미래지능형 기계산업, (2) 스마트농생명·식품산업, (3) 조선·해양·에너지 산업, (4) 탄소·복합소재 산업이 있음
-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를 시도의 자체 예산만을 투입하여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

-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100% 정부 직접 지원의 경우, 재정투입의 지속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산업 집중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민간이 참여하는 금융상품을 통한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민간의 경우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투자처에 투자함으로써 민간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지역 주력 산업에 자본을 공급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주력산업 특화펀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타 시도 특화펀드 도입의 성공 요인분석에 기반하여, 전라북도에 맞는 펀드의 도입 및 조성을 통해 수익률 안정화 및 자본 효율성 제고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도록 함
 - 민간자본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균형발전 기여함
-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전라북도 주력산업 및 투자 우선순위 제시

- 전북의 지역주력 산업으로 선정된 미래지능형 기계산업, 스마트농생명·식품산업, 조선·해양·에너지 산업, 탄소·복합소재 산업의 핵심 주력산업 및 연관 주력산업 현황분석
- 도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현황 파악, 장래 투자 수요·전망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 분석

□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도입·운영 방안 제시

-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구조 및 운용원리
- 국내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운용실태 조사 및 시사점 제시
 - 서울 등 수도권 특화펀드 운용사례, 약정조건 등 현황 및 시사점
 - 지자체와 민간의 펀드 조성 사례

□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도입 기대효과

-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의 기대효과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실증분석에서 활용된 주요 통계 변수 및 분석 방법 검토

□ 사례연구

- 국내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운영실태 조사 및 시사점 제시

제 2 장

지역 주력산업 특화펀드 현황

제1절 국내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현황

제2절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운용

제3절 지역특화펀드 활성화 사례

제2장 지역 주력산업 특화펀드 현황

제1절 국내 지역주력산업 특화펀드 현황

1. 주요 지방자치단체 벤처 투자 펀드 현황

- 지자체가 선정하는 중점 육성 분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늘어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다양한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지자체 출자가 증가하는 것은 벤처펀드를 활용한 지역기업 육성과 정책 목적 달성이 여타 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체 예산을 들여 출자하는 재정투자에 더해져 민간의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본금 확충과 함께 지역특화펀드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단, 펀드 운용기간 동안 약정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 먼저 서울시는 시도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벤처펀드 출자에 나서고 있음
 - 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펀드'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주요 산업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집중투자 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조성된 펀드임
 - 주요 출자자로는 서울시와 모태펀드가 참여하고 있으며 '18~'22년까지 전체 출자액은 1조 2천억 원 규모임
 -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스케일업, 초기창업, 해외운용사), 재도전지원, 서울 바이오로 구성된 6개 신산업에 집중 투자 하며, 2021년도 출자계획은 473억 원임

- 부산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총 300억 원 규모로 150억 원씩 2개 펀드를 출자하여 2021년 43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게 되며, 오는 2023년까지 총 1,3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함
-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부산시와 기술보증기금이 모태펀드 출자금을 납입하고 민간운용사가 참여하여 펀드를 구성
 - 결성된 펀드는 부산지역 7대 전략산업 분야인 스마트해양, 지능형 기계, 미래 수송기기 또는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됨
 - 또한 지역 내 투자기업과 VC를 발굴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시 부산 소재 벤처캐피탈에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내 의무투자액을 정하여 부산 지역에 투자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초과 수익 배분액의 10% 이내를 추가 인센티브로 제시)

〈표 2-1〉 주요 지방자치단체 벤처투자 펀드 사례

펀드명	주요 출자자	투자분야	출자액
서울미래혁신 성장펀드	서울시, 모태펀드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서울바이오	1조2천억 원 ('18.~'22. 5년간)
부산지역 뉴딜펀드	부산시, 기술보증기금, 모태펀드, 민간운용사	스마트해양, 지능형 기계, 미래수송기기, 글로벌 관광, 지능정보 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등 부산지역 7대 전략산업 분야	300억원
경기지역 특성화펀드	모태펀드, 경기도 민간운용사	농식품	100억원
충청지역 뉴딜펀드	세종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한국수자원공사, 모태펀드, 민간운용사 등	수자원, 스마트시거,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기업 등	300억원
제주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제주JDC	스마트디지털 융합	10억원

출처: 유근일(2021.08.17.)¹⁾

1) 유근일(etnews), “지자체, 벤처투자 ‘큰 손’ 부상…‘지역특화펀드’로 기업 키운다.”, (2021.8.17.)

- 충청지역 뉴딜펀드는 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각각 160억원 및 140억 원을 출자해서 230억 원과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충청지역 뉴딜펀드의 중점 투자 대상인 수자원 기업 또는 지역 소재 기업에 투자하면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함
- 제주는 국토교통계정을 모태펀드로 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제주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함. 조성된 펀드의 규모는 출자금 10억원, 전체 펀드 규모는 30억원으로 예상됨
 - 조성된 제주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는 출자규모의 2배 이상을 제주지역 스마트디지털 융합 분야 등 특화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밖에 경남도는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펀드,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에 각각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조선업구조개선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여 지역기업을 지원 중임
 -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뉴딜펀드를 운용할 지자체 세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

□ 경기도 투자조합 펀드(현황)

- 경기도는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자본 투자하여 기업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펀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아래 표는 경기도 투자조합 펀드의 투자기간, 조성금액 및 투자대상을 제시함
 - 경기도의 슈퍼팬 펀드는 도내 유망 초기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및 데스밸리 단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밖에 경기 재도전 펀드는 재창업 기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며,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는 경기도 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투자대상 기업 선정절차는 기업이 제출한 IR자료를 검토 후 예비실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조건을 협의하고 투자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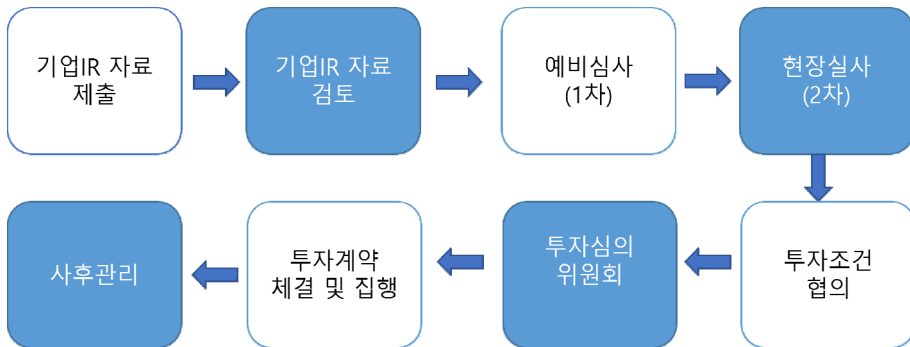
회 심의를 거쳐 투자계약이 체결되면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를 거치는 프로세스로 진행됨

〈표 2-2〉 경기도 투자조합(펀드) 현황

펀드명	투자기간	조성금액	투자대상
슈퍼맨 펀드2호	~2021년 10월	182억원	경기도내 유망 초기기업, 경기도 오디션참가기업,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등
슈퍼맨 펀드3호	~2021년 9월	340억원	경기도내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
슈퍼맨 펀드4호	~2022년 7월	315억원	경기도 내 데스밸리 단계 중소기업 등
경기 재도전펀드 1	~2023년 12월	150억원	재창업 기업 대표, 재창업프로그램 참여기업 등
경기 재도전펀드 2	2021년	-	재창업기업, 경기도 재창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등
소재부품 국산화펀드 1	~2024년 5월	675억원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소재부품 국산화펀드 2	~2024년 9월	680억원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자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림 2-1〉 경기도 투자조합 펀드 투자절차



제2절 모태펀드를 이용한 벤처펀드 운용

1. 모태펀드 개요

-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의 투자조합에 간접적으로 출자·지원하고 있음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가 결성·운영하는 다양한 목적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 혹은 조합을 의미함
- 서울 미래혁신 성장펀드를 비롯한 시도의 벤처투자 펀드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태펀드는 지역특화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모태펀드의 개요 및 운용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모태펀드는 2005년 7월 최초 결성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외 총 13개 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음
 -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결성되었음
 -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공급자 위주의 벤처 투자 정책에서 탈피하고 시장 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²⁾
-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의 출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조합의 운용사를 선정하며 출자자를 대신하여 운용사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임
 - '21년말 기준 모태펀드의 펀드규모는 7조 2,775억이며,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예정임

2) 한국벤처투자 사업소개

〈표 2-3〉 한국모태펀드 개요

결성일	2005년 07월 15일
출자자 (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펀드 규모	7조 2,775억(2021년 12월 31일 기준)
운용기간	30년(2005년~2035년)
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

출처: 한국벤처투자

- 모태펀드에는 현재 중진계정의 총 19개 계정³⁾을 두고 관련분야에 출자를 하고 있음
 - 중진계정은 창업초기, 기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 투자하는 펀드임
 - 이밖에 소재부품장비계정, 지방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정, 청년 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청년계정, 혁신모험계정 등이 운용되고 있음
- 모태펀드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13개 기관이 출자하여 모태조합(fund of funds)을 결성하고, 결성된 모태조합은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뤄짐

3) 모태펀드 주요 출자분야는 중진계정, 청년계정, 혁신모험 계정, 소재부품장비 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문화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과기계정, 연구개발특구계정, 보건계정, 환경계정, 도시재생계정, 국토교통혁신계정, 교육계정으로 총 19개 분야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조합 운용협의회를 설치하여 모태조합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운용 실적을 보고받고 있음

〈그림 2-2〉 모태펀드 운용구조



출처: 한국벤처투자

제3절 지역특화펀드 활성화 사례

1. 광주광역시 AI펀드 사례

□ 광주 AI 펀드(1차) 추진 배경

- 광주시는 2019년 정부로부터 광주시 첨단 3지구 내에 연구개발사업인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음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AI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관련 기업 육성, 기업 유치를 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I 관련 펀드를 구상하게 됨

〈표 2-4〉 첨단 3지구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첨단 3지구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 부지: 4만 7,246m²
- 주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주요시설: 국가 AI 데이터센터
- 완공: 2024년
- 소요 예산: 4,116억 원

□ 1차 AI 펀드 추진 경과

- 2020.01: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설립
- 2020.06: 스마트 LSK 헬스케어 3호 펀드에 50억 원 공동출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42억 원+ 광주테크노파크 8억 원)
※ 스마트 LSK 헬스케어 3호펀드 조성금액 550억 원
- 2020.07: AI 종합지원센터 설립
- 2020.08: 더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 펀드에 50억 원 공동출자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 42억 원+광주테크노파크 8억 원)
※ 더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펀드 조성금액 548억 원
- 2020.07: 공모에 의해 투자펀드 운용사 2개사 선정(주)디터앤인 인베스트먼트, (주)엘에스케이 인베스트먼트)

- 2020.10: 1차 펀드 결성총회
- 2020.11: AI 투자펀드 1,098억 원 조성
- 2022.11: 총 투자금액 786억 원(총투자 기업 12개)

〈표 2-5〉 광주 AI펀드(1차) 개요

구분	내용
펀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LSK 헬스케어 3호펀드 • 더 넥스트유니콘 투자조합
설립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LSK 헬스케어 3호펀드: 2020.06 • 더 넥스트유니콘 투자조합: 2020.08
출자자 및 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출자금액 100억 원(광주테크노파크 16억 원+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 84억 원 공동출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 및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AI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 • 지역 내 우수기업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투자유치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및 지역 기업-AC간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기반 조성
조성금액	1,098억원(2022년 11월 현재)
투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I)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 포함 •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광주로 주된 사무소를 신설 하는 기업
펀드운용사	(주)디티앤인 인베스트먼트, (주)엘에스케이 인베스트먼트
투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연구소, 공장 등)가 소재한 중소·벤처기업(투자 후 1년 이내 이전 예정 기업 포함) • 광주 이전(예정)기업: 접수일 현재 1년 이내 광주로 이전한 기업 및 투자 후 1년 이내 광주로 이전 예정 기업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위 기업에 출자금액의 200%이상을 출자해야함 • 창업7년 미만의 기업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창업 7년 이상의 기업과 투자유치 후 1년 이내 광주이전예정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에 신청 * 관리감독: 광주테크노파크
투자기간	투자 후 4년부터 투자회수 가능(4+4원칙)
투자실적	2022.11월 현재 총 12개업체에 786억원 투자 (AI펀드 186억원+연계투자 600억원)
모집시기	상시모집

자료: 광주테크노파크

〈표 2-6〉 광주 AI펀드관련 조성계획

(단위: 연, 원)

구분	내 용
목표액	2020~2030년, 7,400억원 * 차수별로 전 차수와 2년씩 겹침
	1차(2020~2024) 1,000억원
	2차(2023~2027) 2,400억원 3차(2026~2030) 4,000억원

자료: 광주테크노파크

□ 성과

- 광주 AI펀드는 광주지역내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098억원의 1차 AI펀드를 조성하여 지역내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펀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 광주지역의 스마트 LSK 헬스케어 3호펀드와 더 넥스트유니콘 투자조합 펀드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광주테크노파크가 각각 50억 원씩 공동 출자한 2개 펀드를 묶어 1차 AI 펀드라고 지칭함
- 1차 AI펀드 설계 당시 광주지역내에 창업투자회사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철저한 투자논리에 입각한 운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2020년 당시 광주지역 내에 본사를 둔 VC는 일신방직그룹 계열사인 일신창업투자 1개만이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지역내의 활동은 거의 전무하였고 엑셀레이터(AC) 또한 10개만이 활동하고 있었음
- 2022년 11월 기준 광주지역 내에 본사나 지사를 둔 VC와 AC의 숫자는 총 22개로 2년 사이에 12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2022년 2월에 VC 린벤처스가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였음
 - 투자데모 데이에는 많은 기업과 전국적인 VC, AC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음
- 1차 AI펀드 조성금액이 마감되면 곧이어 2차, 3차 AI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

□ 시사점

- 광주지역 1차 AI펀드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만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광주지역의 1차 AI펀드 운용성과에 대한 성공요인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① 준비된 설계

- 펀드 운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지역에 기반한 업체에 국한할 것인가, 또는 지역외 기업이라도 추후 지역기반에 유리한 경우이면 허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함
- 광주지역 AI펀드 출범 당시 전국구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지역구 기업에 국한할 것인지를 놓고 광주지역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이전계획이나 지점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음
- 투자기간은 4+4로, 펀드가 추구하는 목적 등을 운용사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설득
- 전북 지역특화펀드의 경우, 도입시 우선 적은 출자금으로 운용하고 투자기간도 4+4 뿐만이 아니라 3+3, 또는 2+2 등으로 투자기간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업종제한 여부

- 품목이나 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금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종제한을 최소화하고 업종연관성이 높거나 업종전환의 경우 등에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투자접근성의 확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봄
- 광주 AI펀드의 경우 AI접목이 가능한 기업이면 투자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③ 철저한 상업적 운영기반

- 투자는 High risk, High return이므로 철저한 상업적 기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 외 일체의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운용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성에 맡겨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광주 AI펀드의 경우 투명성과 투자논리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관련 펀드와의 연계투자 도모

- 특정 특화펀드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펀드등과 연계된 투자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함
- 광주 AI펀드의 786억원 투자금 중 2022년 11월 현재 AI펀드 투자는 출자금액의 거의 두배인 186억원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투자 600억원은 연계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⑤ 주변 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1) 벤처기업의 수, 2) VC의 수, 3) 대학교 및 연구소의 수, 4)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실행여부, 5) 기업가 정신을 지닌 우수인력 및 금융 전문인력 양성의 수가 뒤따라야 함
-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학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광주지역은 주변에 광주과학기술원, 대학, 산업단지 기업과 주변의 연관 기업 등과 서로 유기적으로 접점을 이루어지도록 주변 생태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⑥ 투자선정 기준의 명확한 공표

- 미국 VC인 A&H(Andreessen Horowitz)사의 투자선정 기준으로 1) 혁신적 아이디어, 2) 기업가정신과 창업팀, 3) 시장의 규모, 4) 비즈니스 모델 여부를 들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투자기업 선정 시 운용사가 기업에게 투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음

2. 경남벤처투자 운용 사례

- 중기벤처부는 4,700억 원 규모의 지역펀드를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센터, 테크노파크, 전문 운용사(GP), 동문파트너스(전남지역), 서울투자파트너스, 오라클 벤처투자 등의 운용사를 선정하여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 지역뉴딜 벤처 펀드를 만들어 '22년에 펀드를 설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지역 중심 자체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대기업과 협업하여 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남벤처투자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표 2-7〉 경남벤처투자 개요

경남벤처투자 VC 개요	
회사명	(주)경남벤처투자
설립일	2019년 9월 26일
자본금	47억원
위치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운용펀드	- 1호 경남 리버사이노베이션 투자조합(결성 총액 200억 원) - 2호 176억원 규모 - 3호 한국모태펀드 출자 공모에 최종 선정(현재 200억원 규모)
주주구성	대한제강 59.6% 농협은행 10.6% 경남은행 10.6%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8.5% 기타 10.7%

자료: 경남벤처투자

□ 경남벤처투자 결성 과정

- 그동안 경남에는 창업자가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지나 성장하기 위한 자양분을 제공할 벤처캐피탈(VC)에 투자를 해줄 창투사가 없었음
 - 데스밸리는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겪는 과정에서 맞는 도산위기를 의미하며, 통상 창업 후 3~5년 정도의 기간을 의미

-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 등 투자유치가 쉬운 다른 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기거나 투자정보 부족으로 아까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이 지속되어 옴
- 우리나라 VC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으로, 2021년 기준 약 45조 원이 운영 중이나 운용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현실임
 - 경남의 유망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다시 일자리와 인재 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되는 문제가 발생
- 경남은 2018년 중반부터 벤처캐피털협회 등에 홍보하여 서울 소재 기존 창투사가 본점 주소지를 경남으로 이전하면 지역 펀드를 함께 조성하겠다고 제안
 - 이러한 경남도의 움직임에 호응해 대한투자파트너스가 대한제강을 설득하고, 대한제강이 의지를 보이고 창원상공회의소가 주도해 경남벤처투자 설립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설립 협의를 진행함
 - 본사 이전보다는 지역에서도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됨
- 경남벤처투자는 총자본금 47억 원으로 설립되어 경남도를 대리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농협, 경남은행이 주요 설립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민간부문 주요 참여자로는 범한산업, 센트랄, 삼천산업, 대호테크와 창원상공회의소가 참여하며, 철강업체인 대한제강이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음
 - 경남벤처투자는 경남에 일정 비율(지역 내 투자 60% 이상) 이상을 투자하는 경남리버스이노베이션 투자조합(총 결성액 200억 원)을 21년 12월 결성함

□ 경남벤처투자 투자실적

- 경남벤처투자는 22.6월 말 기준 총 155억 원을 투자해 22개의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함

- 경남을 비롯해 동남권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1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설립 취지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여 운용
 - 몇몇 투자 대상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점이 고무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고유가,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후원자 역할
- 경남벤처투자는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 중이며, 김해에 소재한 콘텐츠 개발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경남벤처투자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80억 원 규모의 공동투자금을 유치함
- 경남벤처투자가 최근 투자한 기업은 창원에 소재한 교통혁신 기술을 보유 연구 기업임
- 해당 기업은 모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를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접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해당 기업은 경남벤처투자와 공동으로 타 기관에도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유치된 투자금을 바탕으로 제품 양산 단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미 대기업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시장도 주요 목표임

〈표 2-8〉 경남벤처투자 펀드운용 실적

경남벤처투자 펀드운용 실적	
집행건수	9개 업체
평균 집행금액	평균 10억 9633만원 (최소 3억7500만원~ 최대 20억5000만원)
투자단계	Series A 5건 Pre 3건 연구개발 3건 제조 2건
투자분야	바이오 /의료 4건 화학 1건

경남벤처투자 펀드운용 실적		
연도별	2020.12	자이언트 케미칼 - 화학 신소재 피플앤스토리 - 콘텐츠, 애니맨션/웹툰
	2021.02	아피셀테라퓨틱스 - 바이오/의료 면역질환
	2021.06	메쥬-바이오 /의료 모니터링 드림팜-농산업, 재배/양식
	2021.09	미스터 아빠-음식/외식, 식재재
	2021.12	케이셀바이오 사이언스-바이오, 의료/개발
	2022.02	크리스틴컴퍼니-패션, 신발
	2022.05	유씨아이테라퓨틱스-바이오/의료, 항암제 (포스코 기술지주 텃스선정기업)

자료: 경남벤처투자

□ 경남벤처투자의 지역맞춤형 투자전략

- 경남벤처투자는 지역의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역외 기업의 도내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음
 - 실제로 투자를 조건으로 역내 이전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음. 자연스럽게 투자를 계기로 자주 방문하다 보니, 직접 방문을 통해 동남권의 인프라가 타 지역에 대비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
 - 직접 방문을 통해 동남권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지하게 된 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을 수도권보다 선호하는 경우도 나타남
 - 역외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관건은 투자금 확보이며, 수도권엔 비교적 자금 수급이 여유롭지만, 경남은 그러지 못한 데 비해 경남벤처투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
- 단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요청하면 경영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 현안을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최대한 지원
 - 지역의 공공기관들과 협업해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음
 - 현재는 창원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 중임

- 지능 전지 기반 기계 융합 분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멘토 활동, 입주 지원 등을 진행
 - 이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역 내 초기 창업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자회사인 코업파트너스를 설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액셀러레이터로 인가받음
- 2021년 하반기 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기반으로 경상남도 지역별 특색 펀드를 조성할 계획
- 서부 경남의 항공우주 첨단 산업 펀드, 남부 경남의 관광 펀드, 동부 경남의 스마트농업 펀드 등
 -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벤처 발굴과 창업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하며, 기존의 펀드와 동일하게 경상남도를 비롯해 경남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임

□ 시사점

- 먼저 지역특화펀드 활성화의 과제로 투자금 부족과 우수한 기업의 부재로 제시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우수한 기업이 지역을 떠난다고 말하고 인식하고 있음
 -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창투사(VC)는 지방에 가서 운용사가 되어도 투자할 기업이 없고 투자 후 관리도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 즉, 운용수익을 더 주어도 지역 펀드 GP⁴⁾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그러나 자금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사들이 운용 펀드의 지역 특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가 관건임
- 경남 투자조합은 지역 거점 대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한 사례로 지자체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 사례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례가 있음

4) GP(general partners) 업무집행조합원

-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조경제센터를 테크노 파크를 만들고 대기업을 매칭시키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카카오가, 강원도에는 네이버가 매칭된 바 있음
 - 현재 지역 펀드가 잘 운용되고 지역 기반과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는 곳은 제주도와 강원도를 꼽을 수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작하여 기업 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옴
- 지역 기반 투자는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특화된 기업을 개발 투자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강원도의 네이버 소풍벤처스와 지자체 지역경제 담당자의 협력관계가 좋은 예임
 - 각 지역에는 테크노파크, 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센터 등 다수의 지원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합하고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성 있음
 - 지역의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예로서 경기 스타트업플랫폼⁵⁾을 꼽을 수 있음

5)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https://www.gsp.or.kr/>

제 3 장

전라북도 지역특화 산업 및 펀드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지역특화 산업

제2절 전라북도 출자펀드 및 벤처투자 현황

제3절 전북의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

제4절 분석의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지역특화 산업 및 펀드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지역특화 산업

1. 전라북도 지역 특화산업 현황

- 현재 전라북도는 미래지능형 기계산업, 스마트농생명·식품산업, 조선·해양·에너지산업, 탄소·복합소재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주력 산업 및 전후방 산업육성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함

□ 스마트농생명·식품산업

- 전북은 국내 전통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생명 관련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특히 농촌진흥청 등 6개 농생명 국가기관이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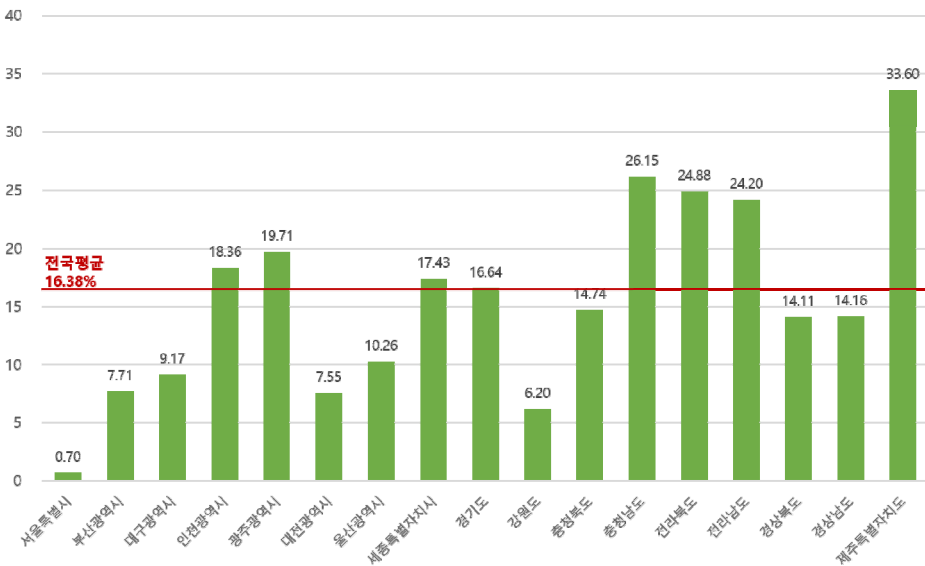
〈표 3-1〉 전북혁신도시 농생명 관련 이전기관 추진현황

순번	기관명	본원 정원	준공 시기	입주 시기
1	농촌진흥청	352명	2014년 6월	2014년 7월
2	국립농업과학원	516명	2014년 6월	2014년 7월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59명	2015년 1월	2015년 3월
4	국립식량과학원	126명	2015년 1월	2015년 3월
5	국립축산과학원	150명	2015년 1월	2015년 3월
6	한국식품연구원	228명	2017년 8월	2017년 9월
7	한국농수산대학	115명	2014년 12월	2015년 2월

- 전통적인 농도(農都)로서 농생명 산업에 강점이 있고, 전라북도 지역 전략 산업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정할 만큼 특화된 지역임
-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경지면적 비율과 농가인구 비율을 보이며, 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높은 쌀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 전북의 농생명 산업체 수는 약 5,074개로 제조업 사업체가 4,31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림어업 분야(347개),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409개)가 뒤를 이음
- 전라북도의 경지면적은 2017년 199,196ha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2017년 전국 경지면적은 1,620,796ha로 전라북도는 전국 경지면적의 12.3%를 차지함
- 전라북도의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130,322ha(65.4%), 밭 면적은 68,874ha(34.6%)로 경지면적 대비 논 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53.4%)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전북의 경지면적 비율은 2016년 기준 24.9%로 전국 평균 16.4%를 웃돌며 제주도, 충청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지면적 비율을 보임

〈그림 3-1〉 전국 시도별 경지면적 비율



- 전라북도의 주요 생산 농산물은 쌀, 보리와 같은 곡류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무, 고추, 콩, 참깨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음

〈표 3-2〉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톤, %)

구분	쌀	보리	마늘	양파	고추	참깨	가을배추	가을무	콩
전국	3,972,468	109,727	303,578	1,144,493	55,714	14,258	1,362,621	457,752	85,644
전북	655,292	37,082	11,861	101,600	8,409	1,661	156,932	81,095	11,016
	(16.50)	(33.79)	(3.91)	(8.88)	(15.09)	(11.65)	(11.52)	(17.72)	(12.86)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농림어업 농작물 생산조사

- (식품) 지역 내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국책 연구기관, 대기업의 투자를 기반으로 식품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 중임
- 전라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익산시에 232만㎡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 관련 입주기업에 연구, 수출,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 식품 품질 안전센터, 식품 패키징센터, 파일럿 플랜트, 식품벤처센터(임대형 공장) 등 6개의 지원시설을 클러스터 내에 보유함
 - 하림, 풀무원 등 주요 식품기업을 포함해 54개 기업이 준공 전 클러스터 내 부지를 확보
 -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식품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전북에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3-3〉 전라북도 식품 분야 공공 연구개발 및 지원기관 현황

구분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 식품 품질 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지자체연구소·기업 지원기관	순창장류연구소,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진안홍삼연구소, 고창북분자연구소, 부안참뽕연구소
대학 연구소	전북대 기능성식품 임상 지원센터

- 이전 공공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출형 식품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바이오

- 국내 3대 국책연구소가 위치한 정읍을 중심으로 바이오 분야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첨단과학산업 육성에 집중
 - 약 500여 명의 인력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첨단기술 연구의 꾸준한 성과 발생으로 정읍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제2의 대덕밸리로 급부상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방사선 산업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공업, 환경, 생명공학, RI-Biomics, 방사선육종, 방사선기기 분야별로 연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전북지역의 산업바이오소재 구축으로 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체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산업 바이오소재 상용화를 촉진
 - 전북지역을 바이오산업(생명, 생물) 분야에서 세계적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연구성과물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창업지원 추진
-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각종 화학 및 바이오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연구 및 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및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 국내외 화학 및 바이오 제품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지원과 국내 유일의 흡입독성시험 및 영장류 독성시험 인프라 구축,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 전문 수탁기관
 - 예측 독성 연구, 독성 평가연구, 흡입 안정성 연구, 환경 독성 연구 등 연구
 - '06년부터 '15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검증연구'를 비롯해 16건의 연구성과물을 개발해 12개 기관에 기술이전

□ 탄소·복합소재 산업

- 전라북도는 각종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개설을 통해 탄소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전주시는 '09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며, '10년 지자체 최초로

- 탄소 산업 전담부서를 설치, '15년 탄소제품 우선구매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전북도는 '14년 광역단체 최초로 전담부서를 설치, '15년 '탄소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북도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6년 5월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탄소 밸리 구축사업(1단계, 2011~2016년)은 전북권 단독으로 진행하여 탄소섬유 양산화 성공, 탄소 복합재 상용화 기술센터 개소를 통해 국내 탄소 산업의 기초를 구축
 -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2단계, 2017~2021년)은 전국 공동으로 진행하며, 탄소 복합재 융복합 연구·개발 11개 과제와 기업지원 장비 11종의 인프라를 구축계획
- 전주시의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북 내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이 탄소 소재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세계 3번째로 탄소섬유를 양산하였으며, 10여 개국 21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발히 연구 중임

〈표 3-4〉 전라북도 소재 탄소 관련 연구 시설

연구 시설명	역할	위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시험 장비 제공을 통해 제품의 성능 시험, 평가	전북 전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탄소 소재 관련 연구 및 분석 지원	전북 전주
탄소 융합산업연구조합	탄소 소재 융합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전북 전주
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탄소복합소재 개발 연구 및 기술지원	전북 완주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보고서(2017. 2.)

- 전라북도 내 효성, 테크카본, 일진소재 등 120개의 탄소기업이 있으며, 창업 보육 센터를 2개소(창조경제혁신센터, 효성 탄소특화 창업 보육 센터)를 운영 중
 - 전북은 위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탄소 산업 매출 10조를 달성하고 24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3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선·해양·에너지산업

- 전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전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인프라 구축 및 산업육성을 지속해서 추진해왔음
 -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책연구소 유치 추진(2008), 솔라밸리 650프로젝트(2013~2020), 2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 산업(2017~2021)
- 2011년 부안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조성되어 단지 내에 테마 체험단지, 산업단지, 실증연구단지, 컨벤션센터가 들어서 있음
 - 실증연구단지에는 전북 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료전지), 한국기계연구원(풍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태양광) 등이 입주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함
- 2017년부터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으로 서남해 해상풍력(60MW 규모, 4300억 원)과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15MW 규모, 300억 원)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임
 - OCI, 솔라파크 코리아 등 태양광 소재 생산 및 발전 기업, 라온테크, 케스코 등 풍력 발전 기업, 프로파워, 보립테크 등 연료전지 관련 기업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두산 퓨어셀의 인산형 연료전지 익산공장 준공에 따라 연료전지 관련 협력사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전라북도는 특히 태양광 발전에서 높은 생산량과 발전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태양광 발전량의 18.3%를 차지하고 있음⁶⁾

〈표 3-5〉 전국 및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단위: MWh)

구분	2014			2015			2016		
	전국	전라북도	비율	전국	전라북도	비율	전국	전라북도	비율
합계	26,882,190	981,230	3.65	37,078,863	1,252,726	3.38	40,655,803	1,584,559	3.90
태양광	2,556,299	448,670	17.55	3,979,159	724,839	18.22	5,122,441	935,831	18.27
풍력	1,145,556	11,428	1.00	1,342,439	16,395	1.22	1,683,142	20,494	1.22
수력	2,753,925	238,530	8.66	2,150,013	229,366	10.67	2,858,714	191,798	6.71
해양	492,172	-	-	496,354	-	-	495,556	-	-
바이오	4,656,238	206,537	4.44	5,546,583	199,411	3.60	6,237,564	295,318	4.73
폐기물	14,334,944	60,467	0.42	22,468,966	70,726	0.31	22,754,303	139,183	0.61
연료전지	943,056	15,599	1.65	1,089,260	11,989	1.10	1,143,402	1,933	0.17
IGCC*	-	-	-	6,089	-	-	360,681	-	-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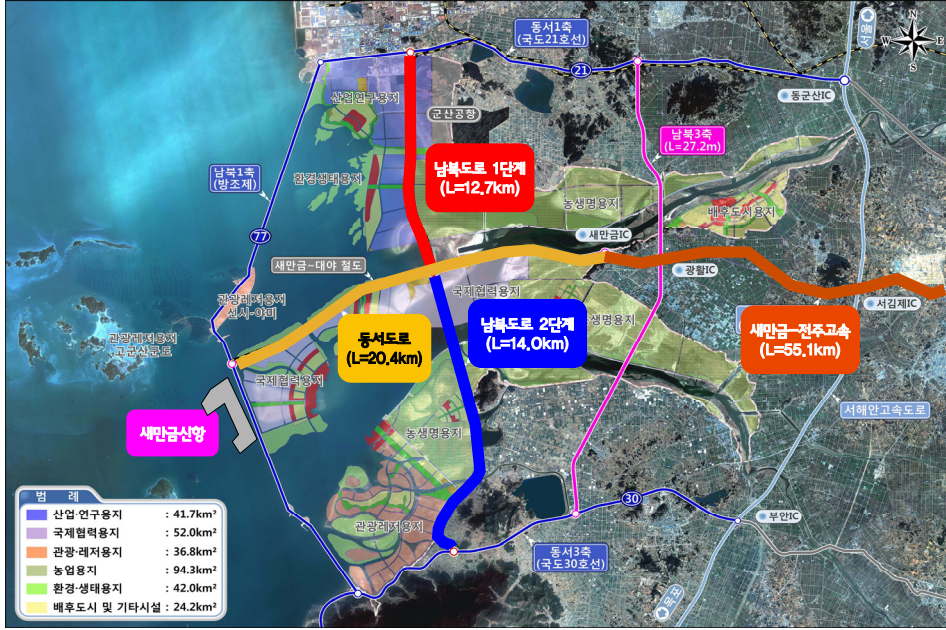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2017. 12.)

□ 새만금 사업

-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 교통망 조기 구축’ 등을 추진
 -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예정

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2017. 12.)

〈그림 3-2〉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



〈표 3-6〉 전북 지역주력 선정산업

지역주력산업	주력사업 구분	품목(산업)명
미래지능형 기계산업	주력산업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지역주력산업	주력사업 구분	품목(산업)명
스마트농생명· 식품산업	주력산업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 제외) •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장류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배합 사료 제조업 • 화장품 제조업 • 한의약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조선해양· 에너지산업	주력산업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태양력 발전업 • 기타 발전업 • 기타 선박 건조업
탄소·복합소재 산업	주력산업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방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특수 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펄프 제조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합성섬유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탄소섬유 제조업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 전북 기술업종별 지역특성

- 전북의 주력산업별로 기술업종의 사업체 입지계수를 살펴보고자 함
 - 통계청의 지역별 입지계수는 기술수준에 따라 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 창의 및 디지털, ICT, 전문서비스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전북의 주력산업인 기타 및 장비 제조업 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고기술에 식료품제조업은 저기술에 해당함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은 사업체 입지계수로는 완주군, 종사자 입지계수로는 군산시 지역의 집적도가 높음

〈표 3-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입지계수

(기준: 2020년, 전국대비 전북 지자체 입지계수)

지역	사업체 입지계수	종사자 입지계수
전주시 완산구	0.1	0.1
전주시 덕진구	0.5	0.7
군산시	0.9	1.1
익산시	0.9	0.8
정읍시	0.5	0.6
남원시	0.3	0.3
김제시	0.8	0.5
완주군	1.1	0.5
진안군	0.2	0.1
무주군	0.2	0.1
장수군	0.1	0.1
임실군	0	0
순창군	0.1	0
고창군	0.1	0.1
부안군	0.2	0.2

출처: 통계청 통계지리정보(SGIS)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은 사업체 및 종사자 입지계수로는 완주군,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의 집적도가 높음

〈표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입지계수

(기준: 2020년, 전국대비 전북 지자체 입지계수)

지역	사업체 입지계수	종사자 입지계수
전주시 완산구	0.1	0.3
전주시 덕진구	0.7	0.3
군산시	2.4	1.9
익산시	1.7	1.6
정읍시	1.1	1.1
남원시	0.3	0.4
김제시	5.2	3.9
완주군	7	6.8
진안군	-	-
무주군	-	-
장수군	-	-
임실군	-	-
순창군	0.2	0
고창군	0.2	0.1
부안군	0.2	0

출처: 통계청 통계지리정보(S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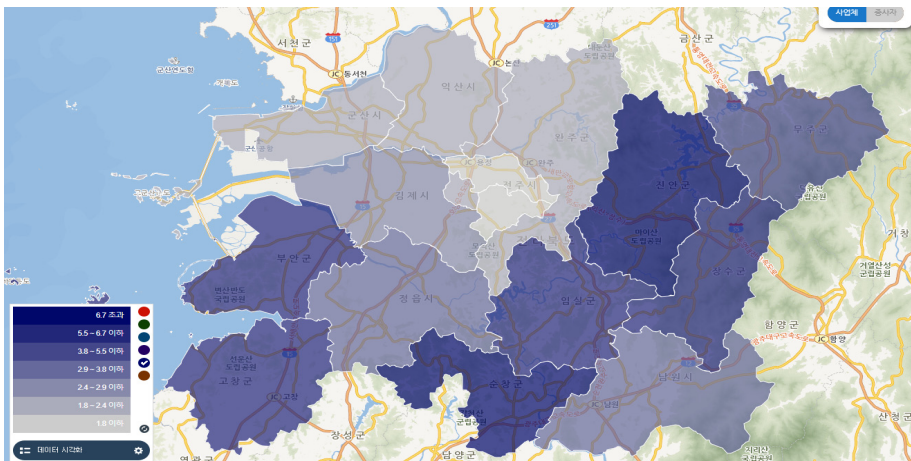
- 식료품 제조업 업종은 사업체 입지계수로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장수군, 무주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지역의 집적도가 높음. 종사자 입지계수로는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장수군,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지역의 집적도가 높음
- 전북은 고기술 업종에 비해 식료품 제조업종의 전국대비 입지계수가 높은 편임

〈표 3-9〉 식료품 제조업 입지계수

(기준: 2020년, 전국대비 전북 지자체 입지계수)

지역	사업체 입지계수	종사자 입지계수
전주시 완산구	1.8	1.9
전주시 덕진구	1.3	1
군산시	1.9	2.3
익산시	2.1	3.3
정읍시	3.8	5
남원시	3.8	6
김제시	2.9	5.5
완주군	2.4	0.7
진안군	7.5	9.3
무주군	5.5	8.5
장수군	5.6	6.5
임실군	6.7	9.6
순창군	7	9.2
고창군	5.8	8.1
부안군	5.8	10.9

〈그림 3-3〉 전북 식료품 제조업 입지계수



제2절 전라북도 출자펀드 및 벤처투자 현황

1. 전라북도 출자 펀드 현황

- 전라북도의 지역주력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출자한 펀드는 총 9개며, 관련 현황은 <표 3-10>에서 제시하고 있음⁷⁾
 -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전북경제 활성화 펀드’는 2012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로 존속 10년차를 맞고 있으며, 서울투자파트너스를 운용사로 하고 있음
 - 전북경제활성화 펀드 조성액은 총150억 원이며 이중 전라북도 출자액은 10억원, 모태펀드 출자액은 100억원이며 21년도 말까지 도내 투자실적은 90억을 달성하고 있음
 - 이밖에도 공공기술 기반펀드(조성액 501억원), 일자리창출 펀드(733.5억원), 소부장펀드(300억원), 지역뉴딜펀드(162억원), 탄소성장펀드(200억원), 퍼스트 무버 벤처펀드(180억원), 창업벤처특화펀드(140억원), 호남권 엔젤투자 펀드(50억원) 등에 도의 출자금이 투입되었음
 - 반면 현재 운용중인 9개 펀드의 주관부서는 혁신성장 정책과(연구개발특구팀, 혁신산업팀), 일자리경제정책과(창업지원팀) 등으로 운용주체가 혼재되어 있으며, 펀드 조성액의 일부만이 도내에 투자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1.3%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비중 48.7%에 비해 높은 편임⁸⁾
 - 이중 전북의 중소기업 수는 247,954개이며 전국 비중은 3.6%임
 - 벤처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59.3%로 수도권 편중이 중대기업 비중보다 높으며, 21년도 비중은 62.1%로 쏠림현상이 심해지는 추세임

7) 전라북도(20-08-26), “전북도 출자 펀드, 2020년 상반기 투자보고회 개최”, 일자리경제정책관실

8) 중소벤처기업부(22.02.03),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4,700억원 이상 조성” 보도자료

- 또한 전라북도 소재 벤처기업 수는 총819개이며, 이는 전국 2.1%의 비중임
 - 따라서 전북의 전국대비 벤처기업 비중은 중소기업 수 비중인 3.6%보다 낮은 수치임
- 2021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소재한 창업투자회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창업기획기업의 수도 9개 사(2.5%)에 불과함
 - 전국적으로 창투회사는 총197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수도권에 179개사(90.9%)가 집중되어 있음
 - 전국적으로 창업기획기업은 총359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수도권에 239개사(66.6%)가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펀드를 조성하더라도 펀드를 운용·출자하게 되는 주체인 도내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 이 경우 지역특화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지역내 업체가 아닌 서울 등 수도권 운용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반영하듯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용하는 9개 펀드의 운용사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기업임
- 지역내 특화산업 활성화, 펀드의 조성·활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라북도가 출자한 펀드의 조성액 대비 도내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역대투자 비율은 탄소성장 펀드(60%)와 전북경제활성화펀드(60%)가 역대투자 비율이 높음
 - 그 밖에 퍼스트무버 벤처펀드(36.1%), 공공기술기반펀드(10%), 일자리 창출펀드(11.2%), 소부장펀드(6.7%) 순으로 역대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역뉴딜펀드, 창업벤처특화펀드, 호남권엔젤투자펀드의 경우에는 역대 투자실적이 없음

- <표 3-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북이 출자한 9개 펀드의 총조성액은 2,416.5억 원이며, 이중 전라북도는 256억 원을 출자함
 - 도의 출자액 비중은 평균 10.6%임
 - 한편 모태펀드의 출자액은 954.8억원으로, 모태펀드의 출자액 비중은 39.5%임
 - 따라서 도와 모태펀드의 출자액 비중은 50.1%로 조성액의 나머지 49.9%는 민간에서 투자하고 있음
- 펀드의 존속기간은 5년~10년⁹⁾으로 최초 설정이 되었으며, 2012년에 조성된 전북경제활성화 펀드의 경우 존속기간이 '22년까지로 되어있어 운용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도래함
 - 존속기간 만료가 차례로 도래하는 다른 펀드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펀드의 존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도의 투자가 추가적인 역대 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라북도의 출자액 대비 도내투자실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북경제활성화펀드의 경우 전북이 10억원을 출자하여 90억원의 역대 투자 실적을 이끌어 냄
 - 전북과 효성이 투자하고 SJ투자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탄소성장 펀드의 경우 도가 48억원을 출자하여 120억원의 역대 투자를 이끌어 냈음
 - 마찬가지로 SJ투자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퍼스트무버 벤처펀드는 도가 30억을 출자하여 65억원의 역대 투자를 이끌어 냄

9) 존속기간은 5년 단일, 8년(4+4년), 10년(5+5년)으로 설정

〈표 3-10〉 전라북도 출자 펀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공공기술 기반펀드	일자리 창출펀드	소부장 펀드	지역 뉴딜 펀드	탄소 성장 펀드	퍼스트 무버 벤처펀드	창업벤처 특화펀드	호남권 엔젤 투자 펀드	전북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액	501	733.5	300	162	200	180	140	50	150
출자 액	전북 15 (3.0%)	30 (4.1%)	50 (16.7%)	40 (24.7%)	48 (24%)	30 (16.7%)	30 (21.4%)	3 (6%)	10 (6.7%)
	모태 9.8 (2.0%)	280 (38.2%)	180 (60.0%)	90 (55.6%)	100 (50.0%)	90 (50.0%)	75 (53.6%)	30 (60.0%)	100 (66.7%)
존속 기간	8년	8년	8년	8년	8년	8년	8년	5년	10년
	(2017 ~2025)	(2018 ~2026)	(2021 ~2028)	(2022 ~2029)	(2016 ~2024)	(2019 ~2027)	(2021 ~2029)	(2021 ~2026)	2012 ~2022)
운용사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포스코 기술투자 케이런 벤처스(유)	L&S 벤처투자 캐피탈	로건 벤처스	SJ투자 파트너스	SJ투자 파트너스	피앤피 인베스트먼트	한국엔젤 투자협회	서울투자 파트너스
도내 투자 실적	50	82	20	-	120	65	-	-	90
	10.0% ¹⁰⁾	11.2%	6.7%	-	60%	36.1%	-	-	60%
주관 부서	혁신성장 정책과 (연구개발특구팀)		혁신성장 정책과 (혁신산업팀)		일자리 경제정책과 (창업지원팀)				

출처: 전라북도 보도자료(20.08.26.)

2. 전북 탄소성장 펀드 투자성과

○ 전북의 탄소성장펀드는 도내 12개사, 120억원을 포함하여 총 18개사, 18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의 특화산업인 탄소, 농생명 산업관련 창업·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도내 투자기업은 투자 시점 대비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256%, 고용은 227% 성장하여 괄목할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탄소성장펀드’ 성과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 직접 고용창출(366명→936명), 매출 성장(1,497억원→3,392억원)

10) 총조성액 대비 도내 투자실적의 비율

-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의 마중물로 창업·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자하고 있어, 탄소성장펀드가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짐
 - 출자펀드의 성과가 높다면 이후에는 자금이 회수되어 재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며, 회수된 투자금은 경쟁력 있는 신생 스타트업에 지속적인 자금이 투입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임
- 탄소성장 펀드 투자결과 펀드 포트폴리오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인 성일하이텍은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함
- 이러한 투자사례를 기반으로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탄소 산업과 관련된 소재산업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2차전지 소재 산업의 경우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 향후 국내 수출을 견인할 주요 산업으로 전라북도는 2차전지 소재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동박업체로는 SK넥실리스(정읍), 일진머티리얼즈(익산), 솔루션첨단소재(익산)이 익산, 정읍에 소재해 있음
 - 2차전지 첨가제, 전해질 업체로는 천보 비엘레스가 군산에 위치함
 - 폐배터리 재활용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성일하이텍(22.7)과 반도체 소자용 박막 등을 생산하는 제이아이테크(22.11)는 벤처투자 단계를 지나 코스닥 상장에 성공함

제3절 전북의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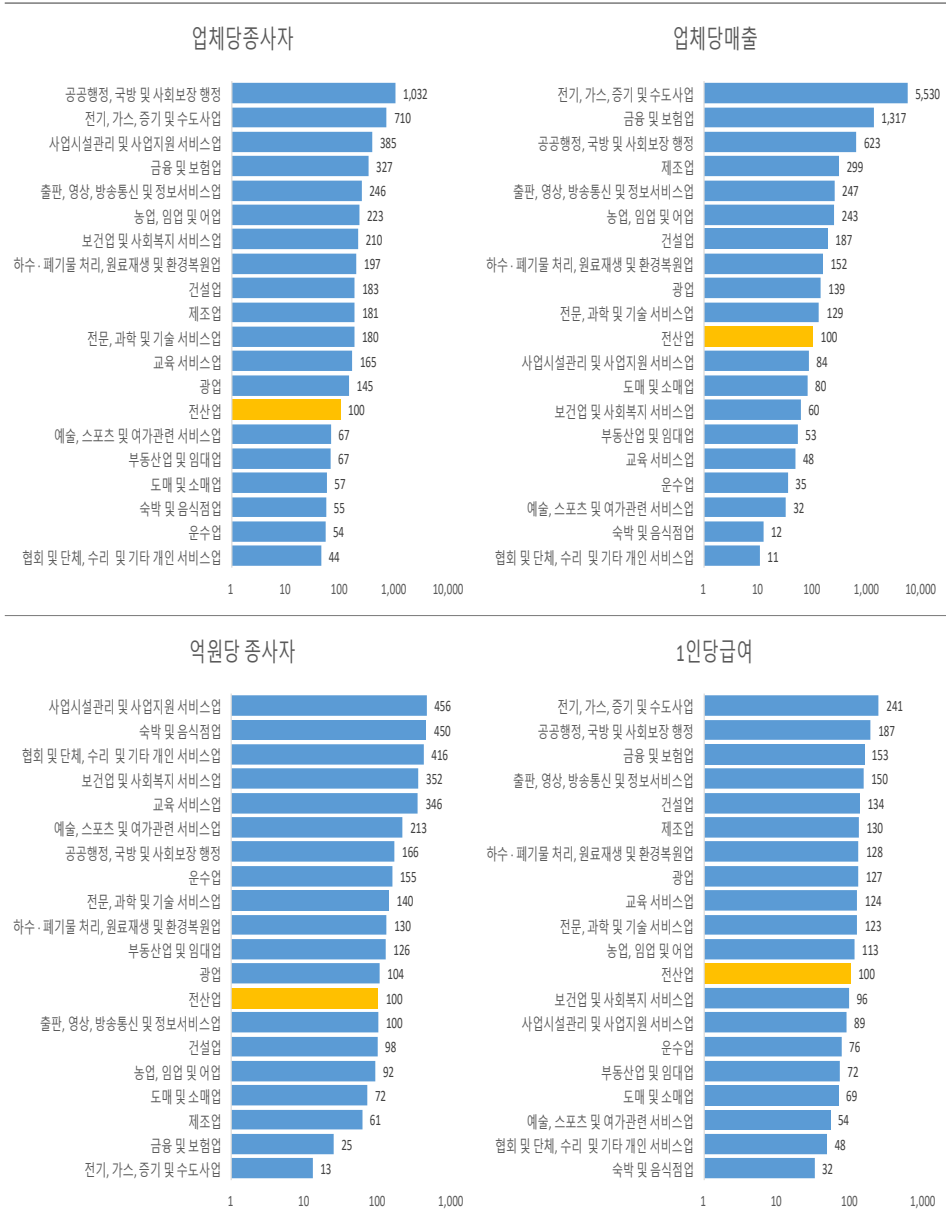
1. 산업 분류별 고용효과 분석

- <그림 3-4>는 전국의 산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분석을 위한 지표들을 나타냄
 - <그림 3-4>는 전국의 산업 대분류별로 고용구조의 상대적 비교를 시도하고자,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매출액, 억원당 종사자수, 1인당 급여 4개 지표에 대해 전 산업 평균값을 100으로 표시하고 각 산업별 지표값을 제시함
 - 분석결과 제조업의 업체당 종사자는 181, 업체당매출은 299, 억원당 종사자수는 61, 1인당 급여는 130으로 산출됨
 -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전산업 평균대비 업체 규모는 크며(업체당 종사자수 181, 업체당매출 299), 억원당 종사자수는 61로 전산업 평균보다 낮아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보임
 - 또한 제조업 1인당 급여는 130으로 전산업 대비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냄
- 매출액 1억원 당 종사자수가 평균대비 큰 값을 갖는 산업은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함
 - 만약 특정 산업에서 매출액 억원당 종사자 수가 전산업 평균보다 크다면, 노동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억원당 종사자 수가 큰 산업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며 상대적인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림에서는 산업 대분류의 순서별로 표시된 지표의 값을 각 지표별로 순위별 정렬을 통해 제시함

11) 여효성·이장욱(2019)의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을 참고

- 전국적으로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운수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광업 의 순임
- 한편 1억 원당 종사자 수 기준에 의해 고용효과가 가장 낮은 산업은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등의 순임
- 대체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 초기 투자의 규모가 큰 산업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주로 3차 서비스 산업이 주류임

〈그림 3-4〉 산업 대분류별 전국 고용구조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여효성·이장욱(2019)

2. 전북 산업 대분류별 고용효과 분석

- 전라북도의 산업 대분류별 고용지표들을 살펴보면, 업체당종사자수 84.6, 업체당매출액 63.2, 매출1억 원당 종사자수 133.9, 1인당 급여 87.2로 나타남
 - 따라서 전북의 고용지표는 전라북도 업체들의 영세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음
 - 즉, 전북의 업체당 종사자수와 1인당 급여액은 전국 평균의 85% 내외 수준이며,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평균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체의 규모나 종사자수가 전국 평균을 하회
 - 또한 매출 1억 원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많은 수준이며, 이는 전북의 사업체들이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냄
- 전라북도 산업 중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매출액당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전북도 전 산업 매출 1억 원당 평균 종사자 수의 지표값인 133.9보다 큰 값을 보이는 산업들은,
 -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2) 숙박 및 음식점업
 -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6) 교육서비스업
 - 7) 운수업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9)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2) 건설업 순을 나타냄

〈표 3-11〉 전북 산업 분류별 고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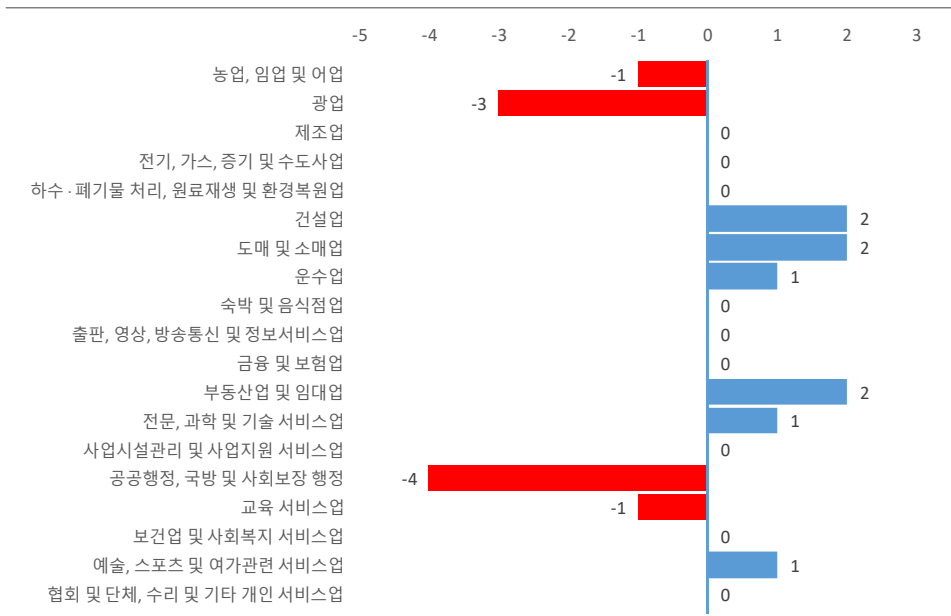
산업 대분류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수		1인당 급여	
	전국 대비	전 산업 대비	전국 대비	전 산업 대비	전국 대비	전 산업 대비	전국 대비	전 산업 대비
전 산업	100.6	100.6	126.4	126.4	79.6	79.6	109.1	109.1
농업, 임업 및 어업	92.3	205.5	123.5	299.6	74.7	68.6	104.6	118.2
광업	101.8	147.5	147.1	204.1	69.2	72.3	106.8	135.6
제조업	178.2	322.9	279.5	834.5	63.8	38.7	122.3	158.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5.5	820.2	118.0	6,524.9	97.9	12.6	108.1	261.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2.2	201.5	92.3	140.4	110.8	143.5	101.2	130.0
건설업	79.6	145.3	61.0	113.9	130.5	127.6	89.4	119.9
도매 및 소매업	82.1	46.9	55.9	44.6	146.9	105.1	69.5	47.9
운수업	89.7	48.1	79.7	27.6	112.5	174.3	85.8	65.1
숙박 및 음식점업	87.3	48.3	81.1	10.0	107.7	484.3	88.7	28.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9.4	146.1	70.2	173.3	84.6	84.3	122.2	183.9
금융 및 보험업	69.3	226.7	37.6	495.8	184.2	45.7	74.8	11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8.5	52.4	57.7	30.6	136.0	171.1	88.5	6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4.3	115.7	36.8	47.4	175.0	244.3	93.8	11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2.3	277.8	73.9	62.3	97.8	445.8	103.0	9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2.1	744.1	80.3	500.0	89.8	148.8	102.5	191.9
교육서비스업	112.1	185.0	130.6	62.3	85.9	296.8	116.8	14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0	195.5	84.1	50.3	110.5	388.8	93.4	8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1.9	55.1	61.0	19.2	134.3	286.6	93.4	5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3.8	41.5	86.5	9.2	108.5	450.8	102.3	49.1

출처: 여효성·이장욱(2019)

- 전국적인 산업의 고용효과 순위와 전북도의 순위가 대폭 바뀐 산업들을 살펴보면 순위가 상승한 산업으로는 건설업이 전국 14위에서 전북도 12위로 변화함

- 건설업은 전국 단위로는 고용효과가 적은 편이었으나 전북도에서는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으로 측정됨
 - 도매 및 소매업은 전국 16위에서 전북도 14위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국 11위에서 전북도 9위로 순위가 상승함
- 순위가 하락한 산업들을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 7위에서 11위로 하락하고, 광업은 전국 12위에서 전북도 15위로 하락함
- 전국 단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광업은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었으나, 전북에서는 전 산업 평균치에 못 미침으로써 고용효과가 미약함
-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북도는 19개 산업 중 7개를 제외한 12개 산업들이 전북도 전 산업 평균인 133.9보다 큰 값을 보임

〈그림 3-5〉 전라북도의 전국대비 고용효과의 순위변동



출처: 여효성·이장욱(2019)

제4절 분석의 시사점

- 현재 전라북도가 관련 주력산업 및 전후방 산업육성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데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을 통한 지역 내 자원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 농식품 관련 산업, 바이오, 탄소복합 소재산업, 조선·해양 및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앵커 기관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앵커기관이 지역산업 혁신의 마중물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북 혁신도시 등에 유치한 앵커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 대학과 R&D 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벤처기업의 기술 및 사업모델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앵커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활발한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나 도내 벤처투자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임
- 가령 2021년 기준으로 전북 소재 창업투자회사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창업 기획 기업의 수도 9개 사에 불과함
-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특화펀드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및 도내 산업 대분류별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1억 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됨
 -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2) 숙박 및 음식점업
 -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5) 교육서비스업
 -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전라북도의 순위가 상승한 산업으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꼽혀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으로 측정됨

- 지역 주력산업은 도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며, 그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성된 펀드의 고용효과를 고려한 산업육성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북의 탄소성장펀드 투자사례를 기반으로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탄소산업과 관련된 소재산업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2차전지 소재 산업의 경우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 향후 국내 수출을 견인할 주요 산업으로 전라북도는 2차전지 소재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동박업체로는 SK넥실리스(정읍), 일진머티리얼즈(익산), 솔루스첨단소재(익산)이 익산, 정읍에 소재해 있음
 - 2차전지 첨가제, 전해질 업체로는 천보 비엘레스가 군산에 위치함
 - 폐배터리 재활용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성일하이텍(22.7)과 반도체 소자용 박막 등을 생산하는 제이아이테크(22.11)는 벤처투자 단계를 지나 코스닥 상장에 성공함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요약

- 지역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벤처투자 쏠림현상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 여유자금을 보유한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
 - 자금의 대부자에서 차입자로 전달되는 자금의 순환 경로는 크게 직접금융(direct finance)과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으로 나뉘짐
 - 또한 금융시장을 통해서 생산적 투자기회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함
-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capital)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지역 내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지역주민의 생애 소득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 전북 소재 벤처기업 수는 819개이며, 이는 전국 2.1%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북의 중소기업 수 비중인 3.6%보다 낮은 수치
- 2021년 기준으로 전북소재 창업투자회사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창업기획기업의 수도 9개 사에 불과하여 지역특화 펀드를 조성하더라도 도내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 따라서 지역내 특화산업 활성화, 펀드의 조성·활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라북도가 출자한 펀드의 조성액 대비 도내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역내투자 비율은 탄소성장 펀드(60%)와 전북경제활성화펀드(60%)가 역내투자 비율이 높음
- 전북이 출자한 9개 펀드의 총조성액은 2,416.5억 원이며, 이중 전라북도의 출자액은 256억 원(10.6%)임
- 도와 모태펀드의 출자액 비중은 50.1%로 조성액의 나머지 49.9%는 민간에서 투자하고 있음
- 존속기간 만료가 차례로 도래하는 다른 펀드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펀드의 존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도의 투자가 추가적인 역내 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라북도의 출자액 대비 도내투자실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북경제활성화펀드의 경우 전북이 10억원을 출자하여 90억원의 역내 투자 실적을 이끌어 냄
- 지역특화펀드 운용사례 검토를 통한 특화펀드 활성화 요인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음
 - ① 준비된 설계
 - 펀드 운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지역에 기반한 업체에 국한할 것인가, 또는 지역외 기업이라도 추후 지역기반에 유리한 경우이면 허용할 것 인가 등등
 - 도입시 우선 적은 출자금으로 운용하고 투자기간도 4+4 뿐만이 아니라 3+3, 또는 2+2 등으로 투자기간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② 업종제한 여부
 - 품목이나 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금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종제한을 최소화하고 업종연관성이 높거나 업종전환의 경우 등에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투자접근성의 확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봄

③ 철저한 상업적 운영기반

- 투자는 High risk, High return이므로 철저한 상업적 기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 외 일체의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운용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성에 맡겨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음

④ 관련펀드와의 연계투자 도모

- 특정 특화펀드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펀드등과 연계된 투자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함

⑤ 주변 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1) 벤처기업의 수, 2) VC의 수, 3) 대학교 및 연구소의 수, 4)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실행여부, 5) 기업이 정신을 지닌 우수인력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수가 뒤따라야 함
-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학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⑥ 투자선정 기준의 명확한 공표

- 미국 VC인 A&H(Andreessen Horowitz)사의 투자선정 기준으로 1) 혁신적 아이디어, 2) 기업가정신과 창업팀, 3) 시장의 규모, 4) 비즈니스 모델 여부를 들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투자기업 선정 시 운용사가 기업에게 투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음

○ 지역특화펀드 활성화 과제로 흔히 투자금 부족이 지적되나 자금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사들이 운용펀드의 지역 특화도를 높이려는 노력임

○ 지역기반 투자는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특화된 기업을 개발 투자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강원도의 네이버 소풍벤처스와 지자체 지역경제 담당자의 협력관계가 좋은 예임

- 또한 각 지역별로 위치한 테크노파크, 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센터 등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일괄되게 관리할 필요성 있음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 전북지역 특화펀드 활성화 문제점

- 전북은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 운용본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내 앵커 기관을 활용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운용본부가 적립한 기금의 규모는 상당하나 기금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금운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적립된 기금을 지역내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 지역 특화펀드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내 금융산업을 육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연금공단 이외의 다양한 지역내 자원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내 금융기관에는 전북은행 등의 지역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금융기관이 특화펀드 자금 조성 및 운용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음
- 또한 특화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북지역 주력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업체들이 육성, 발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아이디어뱅크가 되는 산학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화펀드 도입 방향

- 지역내 주력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업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시작 단계에서 옥석을 가리기 보다는 되도록 많은 기업들에 창업 지원금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초기 벤처기업의 사업성공 확률이 낮은 편임을 감안해야 하며, 사업모델 및 구상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존재하여 사업체별 성공률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

- 다만 벤처 투자의 특성상 빠르게 성장하는 몇몇 기업들이 나와준다면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

□ 신산업 육성과 지역내 고용효과 고려

- 특화펀드 조성을 통해 도가 추진하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펀드 조성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내 새로운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펀드운용의 효과성을 벤처투자 산업의 규모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자본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역 특화펀드의 성과공유

- 지역 특화펀드의 투자금을 지자체 및 모태펀드의 기금을 활용하여 운용하되, 지역에서 성장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가령 지역주민들에게 중위험-중수익 구조의 투자상품 제공으로 지역특화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판매채널을 제공하고, 펀드의 성과로 배당 등을 수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지역 내 중소기업, 벤처캐피탈의 성공 확률이 낮아 충분한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성이 높은 국채, 지방채, 시장지수 추종 펀드 등과의 혼합을 통해 투자자의 요구(Needs)에 맞추어 위험도와 수익률을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함
- 가령 특화펀드의 상품구조를 채권 비중(70%), 시장지수(20%), 지역특화펀드(10%)로 혼합하여 지역주민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금융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앵커기관 유치

- 전라북도는 부산과 함께 지역내 앵커(anchor) 기관을 통해 지역금융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단 앞서 언급한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만으로는 지역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최근 중앙과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추가 지방 이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벤처투자 기금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등의 벤처투자 관련 기관을 도내에 추가 유치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지역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에 유치한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계획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운용 관련 기관들이 포함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문헌

- 신종각. (2011).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 안성조. (2014).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1(2): 43-59
- 양현봉·한창용·김진수. (2018).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8(441)
- 윤형호. (2010).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 이미혜·김행선. (2018).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분석. 「재정정책논집」. 20(2): 159-180
- 조덕희. (201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732)
- 여효성·이장욱. (2019).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창곤. (2013). 노동시장미스매치의 현황과 일자리 정책. 「경제연구」. 31(4)
- 한국은행. (2018). 「지역경제보고서」
- 황상연. (2013). 우리나라 지역 경기변동의 요인분석. 「경제학연구」. 61(2): 31-68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Mishkin. (2014).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The (The Pearson Series in Economics) 11th Edition
- 중소벤처기업부. (22.02.03).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4,700억원 이상 조성”. 정책브리프 보도자료
- 전라북도. (22.06.08). “전북도-효성 협력 펀드, 지역경제 순풍 기대감 고조”. 보도자료